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식품산업이끌 '노사상생형 일자리' 시동

전북 고창군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건설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건설형과 비영리형 지원사업이 있다.

고창군은 주력인 농생명·식품 산업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짰다.

이후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으며 최종 선정됨에 따라 건설형 예산 1억82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4월부터 컨소시엄 기관(한국갈등전환센터 대표 박지호)과 협력해 지역산업 현황 진단-일자리 모델 개발 컨설팅-공통화-상생협약(노사민정)-일자리 모델 이행방안 마련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문화예술인 거리 조성 본격화

부안군 부안읍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대구 김광석 거리 총괄기획을 맡았던(사)인디503의 이창원 대표를 초청해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과 활성화 방안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읍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형물 설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부안읍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직원들은 지난 25~28일 2일간 대구 김광석 거리를 현장 방문했으며 설명회에서 문화예술인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

## 정읍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 시기동 행복주택 준공

정읍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이 주거 부담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3년여에 걸쳐 추진했던 시기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기동 267-34번지 일원에 설치된 공공주택이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



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5억 원(한국토지주택공사 45억, 시비 30억)이 투입됐다. 시기 행복주택은 지상 8층, 연면적

1,378㎡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조성되고, 2층은 관리실과 휴게공간, 3층부터 8층까지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주택 12세대와 36㎡ 규모의 주택 5세대가 건립됐다.

주택 17호에는 대학생·청년 5세대와 신혼부부 5세대, 주거급여 수급자 4세대, 고령자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에는 차량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장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장기 주차와 불법 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지역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농작업 현장 15분안에 농기계 임대·배달 서비스

### 고창군,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동서남북 농기계 배달 완성'

고창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북부권에서도 문을 열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북부권(흥덕·성내·신림·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준공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효율적인 농작업 지원을 위해 흥덕면 동사리 부지(7680㎡)에 지난해 9월 착공했다. 연면적 1494㎡규모에 총사업비는 36억원이다.

농기계보관장고, 공선발장, 세척시설 등 총 3동을 건립했다. 임대장에는 트랙터, 농업용굴착기, 관리기 등 총 54종 155대를 구비했다.

그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본소(고창읍)나 서남권(정읍시 소성면)

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북부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고창군의 동서남북 농기계 임대 및 배송서비스가 모두 완성됐다. 고창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반경 10km 이내, 15분이면 집 앞까지 농기계를 가져다주는 고창군민의 혁신적인 농민정책이다.

군은 1톤 특수차량을 3대 확보해 농민들이 3일전 농기계를 예약하면 전문 운송차량을 이용해 영농현장까지 직접 배달해준다.

앞서 고창군은 농촌고령화·규모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농민들이 직접 사업소까지 와 목적인 기계를 경운기나 1톤 트럭 등에 옮겨 실

으면서 끼임·절단 사고 등이 많았다.

배달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그간 원거리 이동으로 농업인은 사고위험 노출을 줄이고 영농시간을 절약할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고창군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고,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까지 실시 후 다음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센스민트'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소는 고창군 명품 농산물 생산에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 200여대를 추가로 구입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7대 전략 작물(수박, 멜론, 고추, 인삼, 보리, 고구마, 땅콩)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민관협력형 자살 예방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정읍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민관협력형 자살 예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살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생명 존중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관협력형 자살 예방사업은 민간영역에서의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특화된 자살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살 예방 서비스와 자살 시도 차단, 자살 위기자 생명 보호 등 각종 예방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5천만 원을 활용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취약지역 아파트 9개소와 학교 8개소, 생명 사랑 실천



업체 54개소 등 협력 기관 7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음의 소리할 설치와 홍보물 배포, 우울도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귀감이 되고 있다.

## '비방 NO 비전 YES' 깨끗한 선거

### 부안군 사회단체,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 전개

부안군 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들은 형식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이색적인 캠페인 문구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28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북 부안지부를 시작으로 부안향산로타리를 럽과 한국부인회 부안군지회 국제와 이즈맘부인클럽 등이 이어간다.

이들 단체들은 캠페인에서 '군민은 네거티브와 비방보다는 비전과 정책이 있는 공명선거를 원합니다', '나의 깨끗한 한 표가 부안의 미래를 좌우합

니다', '비방NO!, 비전YES!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등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색문구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앞장섰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회단체 회원들은 "오미그론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비방보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공명선거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시민참여형 정원 만들기' 공모사업 접수

정읍시가 마을공동체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사계절 향기와 매력에 넘쳐나는 힐링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시민과 함께 향기롭고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형 정원 만들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만족감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마을 공유지 등을 쾌적하고 특색있는 정원으로 연출해 편안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면적 66㎡ 이상의 마을 공유지, 주민 쉼터 또는 50m 이상의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와 단체 등이다.

개소당 1,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비 중 정읍시가 1,35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 단체가 150만원을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꽃나무와 야생화 향기 식물 등으로 조성할 공동체 정원조성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